

## 雪蕉 崔承太의 공주체류기 漢詩 고찰

이 국 진\*

< 目 次 >

- |                                  |                   |
|----------------------------------|-------------------|
| I. 서론                            | III. 명승유람을 통한 정서적 |
| II. 零落한 처지에 대한 고뇌와<br>知友에 대한 그리움 | 이완과 豪氣의 표출        |
|                                  | IV. 결론            |

<국문 초록>

雪蕉 崔承太(?~1684)는 六家를 이어 洛社를 중심으로 여항문학 활동이 본격화되던 시기에 三清洞을 배경으로 활동했던 여항시인이다. 중인과 서리층으로 구성된 洛社의 여항문인들은 신분제약으로 인한 갈등과 괴로움에 의기소침하지 않았다. 오히려 활발한 문학 창작 활동과 교류를 통해 豪氣를 발산하고 자유롭게 풍류를 즐기며 동질감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러한 각별한 결속감으로 인해, 그들이 혼자 떨어져 있을 때면 신분적 제약과 그로 인한 현실적 궁핍함을 더 깊이 절감하기도 했다. 崔承太가 공주에 체류하던 시기가 바로 그러했다.

崔承太가 공주에 체류하던 시기에 지은 시작품들에는 신분제약으로 인한 절망감, 낯설고 곤궁한 환경에서의 괴로움, 그의 삶을 지배하는 내면의식이 집약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또한 洪世泰가 「雪蕉詩集序」에서 崔承太의 詩風은 李白을 스승으로 삼았고, 歌行과 長篇이 뛰어나며 드높은 기상이 있다고 평가한 면모가 생생하게 구현되어 있다. 아울러 공주지역 주요 명승지에 대한 시적 형상화 방식이 돋보이고 개성이 있어서 공주 지역의 한문학 유산으로도 눈길을 끈다.

\* 강원대학교 한문교육과 조교수 / jinysmile@kangwon.ac.kr

당시 崔承太는 한양에 있는 知友와 가족들에게 자신의 재능을 알아주지 않는 현실과 힘든 생활에서 비롯된 불만과 상념을 여러 편의 시로 토로했다. 이 과정에서 ‘쓸모없는 칼’, ‘푸른 녹이 낀 칼’, ‘방황하는 칼’ 등의 意象을 적극 사용하여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괴로움을 강조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한양에 있는 知友와 가족들은 자신의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고마운 존재가 되어주었다.

한편, 崔承太는 힘든 생활 속에서 공주의 명승을 유람하며 심신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계룡산 유람은 잃어버린 줄 알았던 자신의 호방한 기상을 회복시켜 주었다. 이에 崔承太는 李白의 詩風과 장편 가행체 형식을 적극 활용하여 계룡산에서 느낀 호방한 기상을 거침없이 시로 표출하였다. 말하자면 鷄龍山은 崔承太가 李白의 詩風을 맘껏 모의하고 발산할 수 있는 시적 매개물로 작용하며, 그가 현실에서 이를 수 없는 ‘豪氣’를 ‘狂歌’를 통해 맘껏 발산할 수 있게 해 준 고맙고도 소중한 존재였다.

【주제어】 崔承太, 여항시인, 公州, 계룡산, 금강, 李白

## I. 서론

雪蕉 崔承太(?~1684)는 17세기 중후반의 여항시인이다. 崔承太의 아버지 崔奇男(1586~?)은 최초의 여항시집 『六家雜詠』의 同人으로 활약한 여항문학의 선구자적 인물이었다. 그리고 대표적인 여항시인 洪世泰(1653~1725)는 崔奇男의 제자이자 崔承太와 막역하게 교류했던 인물이었다. 요컨대 崔承太는 六家<sup>1)</sup>를 이어 洛社를 중심으로 여항문학 활동이 본격화되던 시기에 중심적인 활동을 했던 시인이었다.

崔承太의 문집 『雪蕉遺稿』<sup>2)</sup>는 洪世泰가 저자 사후 20여년 뒤에 저자의

1) 六家の 구성원은 崔奇男, 南應琛, 鄭禮南, 金孝一, 崔大立, 鄭相壽 이다.

2) 본고의 연구 대상 자료는 <한국문집총간 속 40>의 저본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雪蕉遺稿』(위창古3648-82-9)이다.

아들 崔世衍으로부터 유고를 구해 직접 작품을 선별해서 詩 157 題를 詩體別로 수록하고, 序文을 써 붙여 주면서 집에 보관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崔承太의 작가적 성향과 시적 특징은 洪世泰의 「雪蕉詩集序」에 잘 나타나 있다. 洪世泰는 「雪蕉詩集序」에서 崔承太의 작가적 역량은 아버지 崔奇男의 詩學으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천부적인 자질은 기이하고 빼어나면서 세속을 초월하였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그의 詩風은 초반에는 李白을 스승으로 삼았고, 만년에는 李攀龍 등 明代 後七子를 좋아하여 歌行과 長篇이 뛰어나고 드높은 기상이 있다고 평가했다.<sup>3)</sup> 오늘날 崔承太의 시세계는 세 편의 연구 성과를 통해 구체적인 고찰이 이뤄졌다. 이를 통해 洛社詩人의 중심인물로서 崔承太의 시세계를 고찰한 연구<sup>4)</sup>, 崔承太 시세계의 형성배경과 시세계의 사상·시풍·내면의식에 대한 연구<sup>5)</sup>가 진행되었으며, 『海東遺珠』와 『昭代風謠』에 수록된 시세계를 중심으로 한 연구<sup>6)</sup>가 진행되었다.

본고는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崔承太가 공주에 체류하던 시기에 창작한 한시 작품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현재 『雪蕉遺稿』에는 崔承太가 공주체류기에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 한시 18題 27首<sup>7)</sup>가 남아있는데, 이 작품들은 비록 양은 많지 않지만 崔承太의 작가적 면모와 시적 특징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崔承太가 서울에 있을 때는 수시로 마음 맞는 여향인 동료들과 어울리며 회화와 소회를 나누고 풀 수 있었다. 반면에 혼자 떨어져 공주에 체류하던 시기에는 서울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외로움과 궁벽함에 시달려야

3) 洪世泰, 『雪蕉遺稿』(한국문집총간 속 40 \* 앞으로 '한국문집총간'에서 인용할 때는 '문총'으로 약칭함), 「雪蕉詩集序」, p.341, “雪蕉崔子紹氏, 家傳詩學, 濡染既深, 而其天才實奇逸絕塵。初師太白, 晚好雪樓七子, 歌行長篇, 才格翩然, 有俊發騰蹕之氣。”

4) 윤재민, 『조선후기 증인층 한문학의 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999, pp.314-333.

5) 강난희, 「崔承太의 한시 연구」, 성균관대 석사 논문, 1996.

6) 강석중, 「雪蕉 崔承太의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 11, 한국한시학회, 2007.

7) 崔承太가 공주체류기에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 한시의 제목과 출전은 논문 끝에 부록으로 정리했다.

만 했다. 이로 인해 崔承太가 공주체류기에 지은 한시들에는 속 깊이 자리하고 있던 내면의식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으며, 존재 가치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담겨 있다. 아울러 洪世泰가 높이 평가한 그의 詩風이 생생하게 구현되어 있으며, 공주지역 주요 명승지에 대한 시적 형상화 방식이 돋보이고 개성이 있어서 공주 지역의 한문학 유산으로도 눈길을 끈다. 본고는 이와 같은 중요성을 감안하여, 崔承太의 공주체류기 漢詩를 분석하여 그 내면의식의 심층적 의미와 詩風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II. 零落한 처지에 대한 고뇌와 知友에 대한 그리움

京衙前은 중앙관료기구의 말단에서 문서작성과 錢穀의 출납 등 행정실무를 담당하고 각종 雜役に 종사하던 중앙관서의 아전이다. 이들은 크게 錄事·書吏와 같은 東班京衙前과 阜隸·羅將·諸員과 같은 西班京衙前으로 구분되었다. 그런데 東班京衙前과 西班京衙前은 그 충원방식과 신분상에 차이가 있었다. 東班京衙前이 일정한 시험에 의해 충원되었다면, 西班京衙前은 부역제에 의해 良人들이 동원되었다. 東班京衙前 중에서도 錄事는 법제상 지위가 書吏보다 높아 실권과 업무가 많은 관아와 대신에게만 배치되었다. 반면에 書吏는 錄事보다 낮은 직책으로서 승진되는 자리도 종7품이나 종8품에 한정되었다. 그리고 書吏에 대한 대우는 매우 박해서 녹봉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개인적으로 양식을 조달하여 생계를 해결해야 했다.<sup>8)</sup>

따라서 京衙前 書吏들은 문서작성과 행정실무를 처리하기 위해 기본적

8) 京衙前의 개념과 성격에 대한 이해는 다음 연구를 참고했다. (신혜순, 「조선전기  
의 西班京衙前 「阜隸·羅將·諸員」, 『대동문화연구』 21,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  
연구원, 1987, pp.183-184 ; 강명관, 『조선후기 여항문학 연구』, 창작과비평사,  
1997, pp.34-38.)

으로 한문에 대한 소양을 갖추고 있었는데, 경제적으로는 박한 대우와 신분적인 불평등함을 감내해야 했다. 이로 인해서 京衙前 書吏 중에는 자신들의 재능과 현실적 처지 사이에서의 괴리감·불만·갈등을 강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그 중에서 일부는 유사한 처지에 있는 하급관리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며 자신들의 정서와 의식을 한문학 작품으로 창작하고 향유함으로써 여항문학 담당층을 형성했다.

현전하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崔承太의 행적을 상세히 고찰하기는 힘들지만, 그가 공주에서 書吏의 임무를 담당했다는 사실과 서울로 돌아온 뒤에 京衙前 書吏를 담당했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sup>9)</sup> 즉, 崔承太는 東陽尉 申翊聖의 宮奴가 되었다가 申欽에게 시의 재능을 인정받았으며, 학당을 열어 평민 자제들을 가르쳤던 아버지<sup>10)</sup>로부터 한문 교육을 받고 한문학적인 교양을 익혔다. 그리고 한평생 주로 말단 행정실무를 처리하는 일에 종사하면서 동료 여항인들과 한문학 작품 창작 활동을 활발히 펼쳤다. 이런 가운데 崔承太의 내면에는 현실에서 느끼는 괴리감·불만·갈등 등이 존재했는데, 그가 공주에 머무르던 때는 이와 같은 심적 괴로움이 극대화 된 시기였다.

「公山旅舍書懷」其二 「공주의 旅舍에서 회포를 적다」 두 번째 작품

歸來長鋏滯南州  
豪氣全除百尺樓  
雪白漢城牽遠夢  
草青江路喚新愁  
乾坤納納空悲嘯  
湖海悠悠獨倦遊  
每被欺凌心轉出

돌아가자, 긴 칼이여! 남쪽 고을에 막혀있으니  
호방한 기상 백 척 누대에서 다 사라졌네  
흰 눈 내리던 한양 성은 머나먼 꿈을 이끌고  
풀잎 푸른 강둑길은 새로운 근심을 부르네  
드넓은 천지간에 공연히 슬픈 휘파람 불며  
아득한 강호를 홀로 지치도록 떠돌아다니네  
모욕을 당할 때면 마음 더욱 웅출해지니

9) 崔承太의 생애에 대해서는 강난희, 앞의 논문, pp.11-21.

10) 崔奇男의 생애와 시세계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를 참고했다(성범중, 「龜谷 崔奇男의 삶과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 10, 한국한시학회, 2006).

他鄉不可久淹留<sup>11)</sup>      타향에 오래 머물러선 안되겠구나

崔承太는 장년기에 해당하는 1659년 즈음에 한양에서 공주로 내려왔다.<sup>12)</sup> 본래 청주지역에 있던 충청감영이 1603년(선조 36)에 공주지역으로 옮겨진 사실<sup>13)</sup>을 감안할 때, 崔承太가 충청감영의 書吏를 담당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다.

崔承太가 당시 공주에서 지은 작품들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낮은 타향에서 느끼는 鄉愁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sup>14)</sup> 그런데 그의 鄉愁에 내재된 심층의식에는 남다른 심적 갈등과 괴로움이 존재하고 있었다. 「公山旅舍書懷」其二는 그것이 바로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말단의 행정 실무에 종사해야하는 쓸쓸함과 본인의 역량을 인정받지 못하는 모욕감을 말해준다. 이 시는 首聯에서부터 강한 어감과 직접적인 언술을 내세워 한양으로 돌아가고 싶은 불편한 정서를 드러낸다. 이어서 頷聯에서는 자신이 떠나오던 순간의 흰 눈 내리던 한양과 현재를 대비하고, 頸聯에서는 쓸쓸하고 외롭고 지친 마음을 서정적으로 표현한다. 그리고 尾聯에 이르러 그 불편한 정서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특히 崔承太는 首聯에서 특정 전고를 염두에 둔 시어를 사용하여 시상을 주도한다. 먼저 1구의 '歸來長鋏'이라는 시어는 『戰國策』의 馮驩에 관한 고사를 인용한 것이다. 그 고사는 戰國時代 齊나라 馮驩이 孟嘗君의 食客이 되었을 때, 밥상에 고기반찬이 없고, 외출할 때 수레가 없고, 살 집이 없자 그때마다 장검을 두드리면서 "장검이여 돌아가자구나(長鋏歸來乎)."라고 노래했다는 내용이다.<sup>15)</sup> 이후 '長鋏歸來'라는 말은 재능이 있는데도 알아

11) 崔承太, 『雪蕉遺稿』(충간 속 40), p.361.

12) 강난희는 崔承太가 공주에 있을 때 국왕의 喪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大行大王發 鞠日, 在公山志感」라는 작품을 근거로, 그가 공주에 머물렀던 시기를 1659년 전후로 추정했다(강난희, 앞의 논문, p.18).

13) 임선빈, 「충청감영 역사기록 정리의 성과와 과제」, 『지방사와 지방문화』 11, 역사문화학회, 2008, p.123.

14) 崔承太, 『雪蕉遺稿』(충간 속 40), 「公山旅舍, 贈咸善伯」, p.361, "他鄉獨對故鄉月, 今夜還逢故鄉人. 明日錦江分手後, 客窓孤月倍傷神."

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 되돌아갈 생각을 한다는 의미로 쓰이게 되었다.

이어서 2구의 시어는 『三國志』의 陳登에 관한 고사와 관련이 있다. 2구는 陳登 사후에 許汜·劉表·劉備가 한 자리에서 천하의 인물을 논할 때에 許汜가 “陳登은 湖海의 선비여서 豪氣가 없어지지 않았다(陳元龍湖海之士, 豪氣不除).”라고 불평한 구절, 劉備가 “나 같으면 백 척의 누각 위에 자고 그대를 땅에 재울 것(如小人, 欲臥百尺樓上, 臥君於地).”이라고 대답한 구절을 인용한 것이다.<sup>16)</sup> 崔承太는 이러한 典故를 통해 자신의 재능을 알아주지 않는 현실에 대한 강한 불만과 그로 인해 豪氣가 사라진 심경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崔承太가 이렇게 귀향을 염원하는 마음의 바탕에는 한양에 있는 知友들에 대한 강한 그리움과 동류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한양에 있는 여러 벗들을 추억하며」

- 15) 『戰國策』 권11, 「齊四」, “齊人有馮諼者, 貧乏不能自存, 使人屬孟嘗君, 願寄食門下. 孟嘗君曰: ‘客何好?’ 曰: ‘客無好也.’ 曰: ‘客何能?’ 曰: ‘客無能也.’ 孟嘗君笑而受之曰: ‘諾.’ 左右以君賤之也, 食以草具. 居有頃, 倚柱彈其劍, 歌曰: ‘長鋏歸來乎! 食無魚.’ 左右以告. 孟嘗君曰: ‘食之, 比門下之客.’ 居有頃, 復彈其劍, 歌曰: ‘長鋏歸來乎! 出無車.’ 左右皆笑之, 以告. 孟嘗君曰: ‘爲之駕, 比門下之車客.’ 於是乘其車, 揭其劍, 過其友, 曰: ‘孟嘗君客我.’ 後有頃, 復彈其劍, 歌曰: ‘長鋏歸來乎! 無以爲家.’ 左右皆惡之, 以爲貪而不知足. 孟嘗君問: ‘馮公有親乎?’ 對曰: ‘有老母.’ 孟嘗君使人給其食用, 無使乏. 於是馮諼不復歌. 後孟嘗君出記, 問門下諸客: ‘誰習計會, 能爲文收責於薛者乎?’ 馮諼署曰: ‘能.’ 孟嘗君怪之, 曰: ‘此誰也?’ 左右曰: ‘乃歌夫長鋏歸來者也.’ 孟嘗君笑曰: ‘客果有能也, 吾負之, 未嘗見也.’ 請而見之, 謝曰: ‘文倦於事, 憤於憂, 而性慳愚, 沈於國家之事, 開罪於先生. 先生不羞, 乃有意欲爲收責於薛乎?’ 馮諼曰: ‘願之.’”
- 16) 『三國志』 권7, 「魏書·陳登傳」, “陳登者, 字元龍, 在廣陵有威名. 又倚角呂布有功, 加伏波將軍, 年三十九卒. 後許汜與劉備並在荊州牧劉表坐, 表與備共論天下人, 汜曰: ‘陳元龍湖海之士, 豪氣不除.’ 備謂表曰: ‘許君論是非?’ 表曰: ‘欲言非, 此君爲善士, 不宜虛言; 欲言是, 元龍名重天下.’ 備問汜: ‘君言豪, 寧有事邪?’ 汜曰: ‘昔遭亂過下邳, 見元龍. 元龍無客主之意, 久不相與語, 自上大床臥, 使客臥下床.’ 備曰: ‘君有國士之名, 今天下大亂, 帝主失所, 望君憂國忘家, 有救世之意, 而君求田問舍, 言無可采, 是元龍所諱也, 何緣當與君語? 如小人, 欲臥百尺樓上, 臥君於地, 何但上下床之間邪?’ 表大笑. 備因言曰: ‘若元龍文武膽志, 當求之於古耳, 造次難得比也.’”

채찍 휘두르며 서울을 나서 / 그대들 용과 봉황의 무리와 작별했지 / 봄날  
추위 선달 겨울처럼 사나우니 / 湖嶺은 눈구름에 막혔네 / 산 넘고 물 건너 먼  
길 오느라 駿馬는 여위고 / 雄劍은 금강 물가에서 배회하네 / 단지 속 술은 싱  
거워 취하질 않고 / 시골 가락은 곡조가 없어 참으로 우습구나 / 풍류 넘치는  
詩豪<sup>17)</sup> 子山<sup>18)</sup>의 무리는 / 취하면 외형적인 조건이나 나이도 개의치 않았네 /  
한마디 말도 태산처럼 무겁고 / 천금을 터럭처럼 던져버렸지 / 높은 누대에 올  
라 온 세상 바라보며 / 玉壺를 두드리며 白雪歌<sup>19)</sup>를 노래했네 / 한 말 술에 시  
백 편 지으며 기세가 구름을 뚫고 치솟아 / 삼각산 높은 자태가 작은 비석 같  
았네 / 어찌하면 이 몸을 그대들 곁에 두어 / 한 번 마시고 한 번 노래하며 같  
이 노닐 수 있으랴 / 白蓮峯에서 봄날 팔뚝잡고 노닐던 곳 / 천리 밖에서 그리  
위하며 흰 머리를 돌리네<sup>20)</sup>

이 시는 한양을 떠나 공주로 올 때의 험난하고 외롭던 심경으로부터 시  
작된다. 崔承太는 이 가운데 知友들을 용과 봉황에 비유하고 자신을 駿馬  
와 雄劍에 비유함으로써 자신들의 강한 자부심을 드러낸다. 이어서 知友  
들과 호탕하게 술과 시를 즐기며 막역한 관계를 유지하던 시절을 추억하  
고, 知友들과 함께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드러내며 시를 마무리한다. 여  
기에서 이 시를 좀 더 깊이 감상하기 위해서는 崔承太가 어울렸던 知友가  
누구이며 그때의 분위기가 어떠한지, 그리고 白蓮峯이라는 공간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서울의 민속은 남북이 다르다. …… 白蓮峰 서쪽으로부터 彌雲臺까지가 북부이

17) 詩豪 : 白居易가 劉禹錫을 詩豪로 추천하고 그의 시를 무척 아꼈다(『舊唐書』 권160, 「劉禹錫列傳」, “彭城劉夢得, 詩豪者也. 其鋒森然, 少敢當者. 予不量力, 往往犯之”).

18) 子山 : 北周의 시인 庾信의 자이다.

19) 白雪歌 : 춘추시대 楚나라의 가곡 이름으로, 「陽春歌」와 함께 남이 따라 부르기  
어려운 고상한 시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다.

20) 崔承太, 『雪蕉遺稿』(충간 속 40), 「憶漢陽諸友」, p.348, “揮鞭出長安, 辭爾龍鳳群. 春  
寒猛冬臘, 湖嶺寒雪雲. 跋涉長途駿馬瘦, 雄劍徘徊錦水濱. 瓷甕酒薄不成醉, 野腔無調  
眞可笑. 風流詩豪子山輩, 醉裡忘形無老少. 片言重泰山, 千金擲毫髮. 登高臺望四海,  
擊玉壺歌白雪. 一斗百篇氣凌雲, 華岳高標如短碣. 安得置身爾坐傍, 一飲一唱同遨遊.  
蓮峯春日把臂處, 千里相思回白頭.”

다. 대체로 가난한 집과 놀고먹는 사람들이 많지만, 가끔 의협심 강한 무리가 있어 意氣로 교유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며 이미 승낙한 것은 반드시 실천하고 재난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고 근심하는 자들을 도와준다. 詩人和 文士들이 철마다 노닐어 숲과 샘, 구름과 달을 찾는 즐거움을 다하며, 걸핏하면 시문을 짓는데 다작을 자랑하고 아름다움을 겨루니, 또한 風氣가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겠는가?

林俊元은 字가 자昭인데 대대로 한양의 북쪽에서 살았다. 사람이 준수하고 시원시원하며 특이한 기질이 있고 신이한 자태에 말쑥씨가 좋았다. 젊었을 때 龜谷 崔奇男의 문하에서 학문을 배웠으며 자못 시를 잘 짓는다는 칭찬이 있었다. …… 날마다 무리들과 모임을 가져서 문 앞에는 항상 신발이 가득하고 술상이 끊이지 않았으니, 그 무리에는 庾纘洪·洪世泰·崔大立·崔承太·金忠烈·金富賢 같은 여러 사람이 있었다. …… 매년 좋은 계절에 아름다운 경치를 만나면 여러 벗을 불러 모처에서 모이기를 기약하였다. 林俊元이 주축이 되어 술과 안주를 마련하여 뒤따라가서 번번이 시를 읊고 취하도록 마시다가 즐거움이 다하면 과하였다. 이렇게 하는 것을 常例로 삼았는데 오래도록 귀찮아하지 않았다. 한양에서 조금이나마 제주와 명성이 있는 이들은 이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다.<sup>21)</sup>

「三清洞歌」

「三清洞歌」 중에서

白蓮峰作龍虎盤  
中有三清古玉壇  
壇前鬱鬱松樹林  
洞陰六月靈風寒  
少年携酒此來往  
與遊者誰皆吾黨

白蓮峰엔 용과 범이 서렸는데  
가운데엔 三清의 오래된 玉壇이 있네  
단 앞은 울창한 소나무 숲이요  
골짜크 그들은 유월에도 바람이 차네  
소년들 술단지 가지고 이곳으로 오니  
함께 노니는 자 누구인가, 모두 우리 무리로다

21) 鄭來僑, 『浣嵐集』(충간 197) 권4, 「林俊元傳」, p.554, “京城民俗, 有南北之異. …… 從白蓮以西至彌雲, 是北部也. 類皆貧戶游食之民, 然往往有任俠之徒意氣交游, 好施子, 已然諾, 救災恤患. 詩人文士時節相追逐, 龜林泉雲月之樂, 動有篇什, 誇多闢麗, 豈亦有風氣使然者歟? 林俊元者字子昭, 世居漢師北里. 爲人雋爽有奇氣, 好神姿善談辨. 少時受學於龜谷崔公之門, 頗有能詩之稱. …… 日與其徒高會, 戶屢常滿, 盃盤絡屬, 其徒有庾公纘洪·洪公世泰·崔大立·崔承太·金忠烈·金富賢諸人. …… 每遇良辰美景, 招呼諸人, 指某地爲期. 俊元爲主, 辦酒肴而隨之, 輒賦詩酣飲, 極驪而罷. 以是爲常, 久而不倦. 洛下稍有才名者, 以不得與其會爲耻.”

蕉翁落筆雲烟動	蕉翁이 붓을 드니 구름 연기 일렁이고
林老放歌巖谷響 <sup>22)</sup>	林老가 노래하니 바위 계곡이 울리네
… (하락) …	… (하락) …

이 두 작품은 崔承太가 공주에서 그들과 어울리던 시절을 아련하게 그리 위하는 이유를 실감나게 전해준다. 첫 번째로 인용한 글은 鄭來僑(1681~1757)가 스승 洪世泰의 친구 林俊元(?~1697)을 대상으로 지은 傳 중에서 일부분이다. 이 글의 도입부는 당시 三清洞에 있는 北岳의 한 봉우리 白蓮峰 일대에서 어울려 즐기던 여향인들의 낭만적이고 자유롭고 의협심이 강한 풍모를 잘 보여준다. 이어서 林俊元이 崔承太의 아버지 崔奇男에게 글을 배웠다는 사실, 林俊元이 주도한 모임의 구성원, 그 모임의 성격과 분위기가 잘 나타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용한 시는 洪世泰가 지은 「三清洞歌」 중에서 일부분이다. 이 시에도 白蓮峰에서 여향인들이 함께 어울리며 崔承太가 시를 짓고 林俊元이 노래를 부르던 흥겨운 한때가 잘 묘사되어 있다.

이처럼 崔承太와 교류했던 여향인들은 당시 六家와 洛社를 구성하던 주요 인물들이었으며,<sup>23)</sup> 그들의 모임은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던 단체였다. 무엇보다도 이들의 각별한 우정은 신분적 제약으로 인해 세상에 역량을 맘껏 펼칠 수는 없지만, 문학적 재능과 豪氣만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는 동류의식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憶瀾陽諸友」에서 崔承太가 한양의 知友들을 하염없이 그리위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 이는 崔承太가 「寄洛中諸友」에서 “시편은 장군의 막하에서 인정받지 못하니, 버드나무가 술 마시는 나그네를 몹시 가여워하네.”라고 자신이 외면 받는

22) 洪世泰, 『柳下集』(충간 167) 권2, 「三清洞歌」, p.342.

23) 崔承太가 교류했던 인물들의 관직을 살펴보면, 林俊元은 內需司書吏, 庾纘洪은 司譯院判官, 洪世泰는 譯官, 崔大立은 司譯院判官, 金忠烈은 弘文館書吏, 金富賢은 侍講院書吏였다. 이 중에서 崔大立과 金忠烈은 崔承太의 아버지 崔奇男의 친구로서 崔承太의 스승이자 선배와 같은 역할을 했고, 林俊元과 庾纘洪은 崔奇男 문화의 제자로서 崔承太와 막역한 사이였으며, 金富賢과 洪世泰는 崔承太의 후배였었다(崔承太의 교유관계와 六家와 洛社의 구성원 및 그 성격에 대해서는 강난희, 앞의 논문 pp.21-31 ; 강명관, 앞의 책, pp.139-150).

처지를 호소하고, “마음속엔 寸鐵이 여전히 남았으니, 나를 알아주는 이는 옛날 술친구들뿐이네.”라고 고백하는 부분에서도 확인된다.<sup>24)</sup>

이처럼 공주에서의 崔承太는 현실과의 괴리감과 심리적 갈등이 갈수록 누적되어 갔으며, 급기야 자신의 삶 전체를 진지하게 되돌아보는 과정에 이르게 된다.

「공주의 旅舍에서 아들 世衍에게 소회를 써 부치다」

내 머리카락은 이미 백발이 성성하고 / 내 마음은 날마다 근심스럽네 / 보배로운 책에는 종이 슬어 먼지 일고 / 오래된 칼에는 푸른 녹이 끼었네 / 허망하게도 이룬 바 없어 / 미천한 자들에게 비웃음만 사는구나 / 단지 옛사람의 풍모를 사모하여 / 내 역량의 크고 작음 헤아리지 않고 / 과감히 날아오르다 때때로 땅바닥에 나뒹굴며 / 바람을 타면 남쪽 바다에 다다를 날개를 움직였네 / 나는 본디 빈천하여 / 권문세가와는 늘 왕래가 막혔건만 / 복사꽃 오얏꽃 핀 길에 그들이 저도 / 봄 찾는 나그네를 쫓아가지 않았네 / 오직 두서너 명의 벗이 있어 / 온종일 서로 어울렸으니 / 높은 풍도는 豪儁함을 숭상하여 / 당시의 풍속에 구애받지 않았네 / 술마시고 노래하며 서로 다리 베고 자다보면 / 밤이 깊어 북두성이 기울고 / 벽에 기대어 한 번 높이 읊조리면 / 사방 좌석의 사람들 귀를 기울였지 / 시를 완성해서 종이에 쓰면 / 부친의 가업을 잘 이었다고 말해줬네 / 그러나 헛된 명성 끝내 무슨 보탬이 되랴 / 집에 들어가면 사방 벽이 텅 비었었지 / 아내의 나무람을 면치 못하고 / 친척들의 꾸짖음을 달게 받노라니 / 하늘이 나를 거칠고 방종하게 낳아서 / 고치려 해도 되지를 않았네<sup>25)</sup>

24) 崔承太, 『雪蕉遺稿』(문충 속 40), 「寄洛中諸友」其一, p.361, “消息湖關隻字無, 錦江還似一成都. 詩篇未售元戎幟, 楊柳偏憐客子壺. 千里雲山迷北望, 九霄風亂媿南圖. 心腸寸鐵梁猶在, 知我其唯舊酒徒.”

25) 崔承太, 『雪蕉遺稿』(문충 속 40), 「公山旅舍, 書懷寄世衍」 p.344, “我髮已星星, 我心日慙慙. 寶書落蠹粉, 古劍生苔碧. 廓落無所成, 取笑褐寬博. 但慕古人風, 大小不量力. 決飛時空地, 培風運溟渤. 而我素貧賤, 侯門常阻跡. 陰陰桃李蹊, 不逐尋春客. 唯有數三友, 追隨窮日夕. 高風尚豪儁, 不拘當時俗. 酣歌互枕股, 夜闌星斗落. 倚壁一高吟, 四座耳爲側. 詩成書在紙, 許我能述業. 虛名竟何補, 入門空四壁. 未免室人戒, 甘受宗黨責. 天生我疎放, 欲改而不得.”

객관에 머물던 崔承太는 아들에게 자신의 소회를 담은 장편시를 보낸다. 인용한 바와 같이 시의 전반부는 자신의 삶을 회고하는 내용이다. 근심과 외로움에 휩싸인 崔承太는 지나온 삶이 이룬 바 없이 만용만 가득했다는 회한에 잠긴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세속적 이익을 위해 권세가에 빌붙거나 아첨하지는 않았으며 자부심을 드러낸다. 실제로 당시 書吏들 집단에서는 관리로 발탁되고 승진하고 경제적 형편이 더 좋은 곳에서 활동하기 위한 청탁과 비리가 적지 않았다.<sup>26)</sup> 이런 가운데에서도 崔承太는 권세와 이익을 쫓지 않고, 대신에 마음 맞는 벗들과 호탕하게 어울리는 삶을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가정에 경제적인 넉넉함을 주지 못한 미안함은 가득하지만, 태생적으로 바꿀 수 없는 성격임을 토로한다.

이어서 崔承太는 공주에서의 괴로운 생활을 하소연하고,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릴 가족들에 대한 걱정을 드러낸다. 그리고 아들 崔世衍에게 힘들고 어려운 가정형편에서 태어난 너야말로 우리 집안의 더할 나위없는 기쁨이었으며, 너가 장성하는 모든 순간이 보람의 연속이었다고 격려해준다.<sup>27)</sup> 그리고 시의 후반부에서 장성한 아들에게 아버지로서의 勸戒를 전해준다.

이제 장부의 몸이 되어 / 뜻과 기개가 바야흐로 우뚝하구나 / 너에게 명예와 절조를 따르게 하려니 / 명예와 절조를 따르다보면 零落하는 경우가 많다네 / 너에게 부귀를 따르게 하려니 / 부귀를 따르다보면 위험과 재앙이 많다네 / 부유하지 못하면 배를 항상 굶주리고 / 절조가 없으면 비루하고 천박해진다네

26) 임진왜란 이후 書吏의 선발 과정에서 청탁이 빈번해지고 書吏 요직이 세습화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에서 고찰이 이뤄졌다(원재영, 「朝鮮後期 京衙前 書吏 研究 -19世紀 호조서리의 사례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32, 조선시대사학회, 2005, pp.300-307).

27) 崔承太, 『雪蕉遺稿』(문충 속 40), 「公山旅舍, 書懷寄世衍」 p.344, “嘆年出湖關, 風霜振林籬. 匪兇率曠野, 遵渚隨獨鶴. 羈遊強加食, 辛醜違性適. 咄嗟可奈何, 壯心轉蕭索. 飢寒念爾輩, 能無面生赤. 綺紉任隣兒, 歌管窺行樂. 憶爾懸孤日, 期爾必騰躍. 衰門弄璋慶, 致賀並隣戚. 喜極淚還墮, 祀事有所託. 提携日置膝, 蒙茸髮覆額. 突爾頭角成, 漸看氣食肉.”

/ 사람되기가 어려운 까닭에 / 정침윤은 점괘를 풀이했었지 / 성하고 쇠함에는  
 절로 운명이 있으니 / 어찌 사람이 이길 수 있으랴 / 사람되는 방법 밖에서 구  
 할 것 없으니 / 우리 가문에 본디 배울 것이 있다네 / 가풍을 삼가 떨어뜨리지  
 말고 / 영원토록 곧고도 결백함을 지켜가거라<sup>28)</sup>

인용한 시의 후반부에는 부귀와 절조 사이에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  
 는 아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다. 이는 崔承太가 한평생 체험한  
 것이기에 그 애뜻함과 간절함이 더 크게 느껴진다. 崔承太는 삶에서 부귀  
 와 절조가 모두 중요하지만 둘 다 만족스럽기는 참으로 어려우며, 각각  
 맹목적으로 따라서는 안 되는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충고한다. 나아  
 가서 삶의 성쇠에는 운명이 있음을 알고 사람의 바른 도리에 충실한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강조한다. 이에 그 도리란 멀리서 찾을 것 없이 우  
 리 가문의 가풍을 잘 살펴보고 그것을 지키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이를  
 통해 곧고 결백한 자세를 간직하라고 당부한다. 여기에서의 가풍이란 할  
 아버지 崔奇男에서부터 자신에게 이르기까지 물욕에 휩쓸리지 않고 고상  
 한 인격과 인간 도리의 떳떳함을 중시했던 삶의 자세라고 할 수 있다.<sup>29)</sup>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崔承太가 공주에 체류하던 시기는 零落한  
 처지에서 비롯되는 실존적 고뇌가 극대화 된 시기였다. 崔承太는 자리를  
 잡고 포부를 펼쳐야 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타지를 떠돌며  
 곤궁한 생활을 면치 못하고, 신분적 제약 속에서 멀시와 모멸감을 느껴야  
 하는 현실로 인해 깊은 상념에 휩싸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崔承太는 의  
 협심과 豪氣를 발산하며 자유롭고 당당하게 풍류를 즐기고 서로를 위로

28) 崔承太, 『雪蕉遺稿』(문충 속 40), 「公山旅舍, 書懷寄世衍」 p.344, “及今丈夫身, 志氣  
 方卓犖. 使汝欲名節, 名節多落魄. 使汝欲富貴, 富貴多險厄. 不富腹常飢, 無節還齷齪.  
 所以爲人難, 詹尹釋龜策. 豐悴自有命, 豈可人所克. 爲人不外求, 吾家有素學. 家風慎  
 勿墜, 永世保貞白.”

29) 이와 관련해서 崔奇男이 74세에 지은 「拙翁傳」이라는 自傳은 매우 중요하다. 崔  
 奇男은 이 작품에서 「守拙」을 처세의 기본으로 삼아, 窮達에 대한 가치관을 피력  
 하고 고상한 인격과 인간 도리의 떳떳함을 유지해 온 삶의 자세를 구체적으로  
 서술했다.

하던 知友들을 생각하며 자긍심을 잃지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 신분제약과 가난 속에서 삶을 헤쳐 나가야 할 아들이 떳떳한 인간의 도리를 지키고자 노력했던 가문의 전통을 지켜주길 염원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었다.

### Ⅲ. 명승유람을 통한 정서적 이완과 豪氣의 표출

車峴 이남에 산천의 맑은 기운이 서리고 어려서 큰 고을을 이룬 것으로는 공주가 제일이다. 대개 長白山 한 줄기가 동해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와 鷄林에 이르러 圓寂山이 되고, 서쪽으로 꺾어 熊津을 만나 응축되어 큰 산을 이룬 것이 鷄龍山이다. 물은 龍潭縣과 茂朱縣에서 발원하여 합쳐져 錦山으로 흘러들고, 永同·沃川·淸州 세 고을을 거쳐서 공주에 이르러 錦江이 되고, 꺾어 泗泚가 되어 넘실대며 구불구불 바다로 들어가는데 이곳이 웅진이다. 공주는 계룡산으로 鎭山을 삼고 웅진으로 襟帶를 삼았으니, 그 승경을 알 만하다.<sup>30)</sup>

인용한 徐居正의 「公州聚遠樓記」는 공주의 지리적 위치와 錦江이 굽이 흐르고 鷄龍山이 남동쪽에 솟은 승경을 요약해서 잘 보여준다. 실제로 徐居正의 「公州十景」을 비롯해 역대로 수많은 문인들이 공주의 명승을 찬탄하는 시를 남겼으며, 『新增東國輿地勝覽』 권17, 「忠淸道·公州牧」에는 공주의 산천과 누정의 아름다움을 읊은 문학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崔承太 또한 공주의 여러 명승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왔었는데, 울분과 회한으로 가득 찬 그에게 공주지역의 명승유람이야말로 기분을 전환하고 의식을 고양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30) 徐居正, 『四佳集』(문충 11) 권1, 「公州聚遠樓記」, p.199, “峴以南, 山川淑氣扶輿磅磚, 爲鉅州者, 惟公爲第一. 蓋長白一脈, 傍海而南, 至雞林, 爲圓寂山, 西折遇熊津, 縮爲巨嶽者, 曰鷄龍山. 水發龍潭·茂朱二縣, 合湊于錦, 過永·沃·淸三州, 至于公, 爲錦江, 折而爲泗泚, 瀾漫逶迤, 入于海者, 曰熊津. 公爲州, 以鷄龍爲鎭, 熊津爲襟帶, 其爲勝, 可知也已.” (번역은 한국고전번역원의 번역문을 재인용했음).

「遊甲寺」

度壑穿林遠  
芒鞋濕不乾  
高樓休倦脚  
斜日下層巒  
岳色禪龕潤  
溪風佛骨寒  
僧厨無雜味  
新綠薦蔬盤<sup>31)</sup>

「갑사에서 노닐며」

골짜기 건너 숲을 뚫고 멀리 들어가니  
짚신은 젖어 마르질 않네  
높은 누대에서 피곤한 다리를 쉬다가  
해질녘 층층 산봉우리를 내려오네  
산색은 산사를 적시고  
시냇가 바람에 불상이 서늘한데  
절집 부엌엔 잡된 맛이 없으니  
신록이 소반에 가득하네

「遊洞鶴寺」其一

知名洞鶴愜曾聞  
殿宇新開後劫焚  
盡日窓喧春壑水  
半天樓入度山雲  
蓮花妙法非塵牘  
金粟如來是我群  
信宿禪房清意足  
異香生袖濕氤氳<sup>32)</sup>

「洞鶴寺에서 노닐며」 첫 번째 작품

명성을 알고 있던 동학사는 듣던 바와 같으니  
불당은 불에 탄 뒤에 새로 지어졌네  
온종일 창에서는 계곡 물 방아소리 시끄럽고  
중천에 솟은 누대 속으로 산구름 지나가네  
蓮花妙法은 먼지 쌓인 문서 아니요  
金粟如來는 우리의 친구라네  
선방에 이틀을 묵었더니 맑은 뜻 넉넉하고  
특이한 향 소매에서 일어나 향취가 젖어드네

甲寺는 鷄龍山 북서쪽 기슭에 있는 절이고, 洞鶴寺<sup>33)</sup>는 鷄龍山 동쪽 골짜기에 싸여 있는 절이다. 이 두 절은 모두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과 푸른 숲이 어우러져 경관이 수려하고, 新元寺와 함께 鷄龍山의 3대 고찰로서 유서가 깊다. 「遊甲寺」는 깊은 골짜기와 숲을 지나 경내에서 한나절을 노닐다 해질녘에 돌아오는 정취를 묘사했다. 이 시에는 갑갑하던 숨통을 틔워

31) 崔承太, 『雪蕉遺稿』(문충 속 40), p.356.

32) 崔承太, 『雪蕉遺稿』(문충 속 40), p.361.

33) 『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는 '東學寺'라고 했으며, 이 외에도 '東鶴寺', '洞壑寺' 등의 다양한 寺名으로 불렸다.

주는 산사의 탈속적이고 소박한 분위기와 그 속에서 몸과 마음의 휴식을 취하는 작자의 정감이 잘 드러나 있다.

「遊洞鶴寺」其一은 산사의 아름다운 경관과 한적한 분위기의 묘사에서 나아가 불교적인 교리에 깊이 매료되는 정취까지 표현했다. 崔承太는 頸聯에서 蓮花의 妙法이 진부한 가르침이 아니고, 金粟如來라고도 불리는 維摩居士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친구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蓮花의 妙法이란 그가 다른 시에서 읊은 “空的 도리를 관찰하니 절로 아무 것도 없어, 마침내 蓮花의 妙法을 깨달았네(觀空自無有, 遂悟蓮花妙)”<sup>34</sup>라는 구절을 고려할 때, 모든 실상이 空하다는 이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維摩居士는 우리의 진정한 친구라는 말은 그가 다른 시에서 읊은 “진정 維摩居士가 중생들의 병까지 끌어안은 마음과 같구나(正似維摩抱病心)”<sup>35</sup>라는 구절을 감안할 때, 중생의 아픔을 모두 구제하고자 한 모습에 대한 감발이라고 할 수 있다.

崔承太는 洞鶴寺에 머무르며 휴식을 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모든 것은 緣起의 작용일 따름이어서 고정된 실체가 없이 空하다는 도리를 음미하며 번뇌 망상을 가라앉히고, 중생이 아프면 보살도 아프다는 維摩居士의 대자비심에 깊은 위안을 받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尾聯에서는 禪氣에 흠뻑 젖어 청정한 마음을 회복한 흥취를 발산하며 시를 마무리했다.

한편, 무료하고 지친 일상이 지속되다보면 때로는 뜻밖의 사소한 사건에 편승하여 흥취를 느끼기도 하는데, 崔承太가 공주에 체류할 때도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

34) 崔承太, 『雪蕉遺稿』(문충 속 40), 「宿重興寺, 用孟浩然韻」, p.343, “龍宮象外關, 慧燈透靈照. 松風爽塵襟, 白雲供閑眺. 觀空自無有, 遂悟蓮花妙. 鳶魚証聖理, 儒釋亦同調. 山窓對高僧, 猿鶴聞談笑. 白月湛清池, 靈香冷餘燒. 霜鍾殷碧殿, 曙霞生遠嶠. 明朝下山去, 回首發長嘯.”

35) 崔承太, 『雪蕉遺稿』(문충 속 40), 「中興寺, 次玉湖族叔與李子秀用盧綸韻見寄韻」, p.363, “滿樓峯色綠生陰, 一枕溪聲晝夢深. 慧日轉空橫石塔, 法雲垂地鎖珠林. 非關謝眺登山興, 正似維摩抱病心. 藥鼎經床岑寂甚, 披蘿誰肯遠相尋.”

「西穴寺의 푸른 매」

사람들이 전하길 西穴寺에는 / 石窟이 승려의 거처 가까이 있는데 / 밤마다 석굴 속에 / 푸른 매가 와서 깃들여 잔다하네 / 狂豪한 사람 이 말을 듣고 / 그물을 가지고 가서 잡으려 했네 / 나 또한 쇠했던 흥이 일어나 / 함께 서쪽 산기슭에 올랐네 / 그늘진 벼랑엔 눈이 아직 남아 있고 / 오래된 굴에는 차가운 기운이 쌓였네 / 그윽한 샘물소리 깊숙한 구멍에서 울리고 / 매달린 고드름은 구슬이 어지러이 널린 듯 / 엿보고 있다가 한밤중이 되자 / 산달이 석벽을 비추는데 / 단지 매가 깃들던 자취만 있을 뿐 / 서릿바람 같은 날개는 보이지 않네 / 그 어디 구름과 눈 덮인 곳 / 푸른 등나무 영긴 고목에 앉아 있겠지 / 나는 이 매를 잡아 / 단번에 여우를 쳐서 밤에 곡소리 나게 하고 싶네 / 꿩과 토끼는 헤아릴 수도 없으니 / 飮食供養을 시킬 만하리36)

崔承太는 호기로운 어떤 사람이 西穴寺<sup>37)</sup> 석굴에 숨어 있다는 매를 잡으러 간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를 따라 나선다. 그리고 그와 함께 대낮부터 굴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해 밤늦게까지 잠복해 있었지만 끝내 매를 잡지는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의 마지막 부분은 崔承太가 매를 잡고 싶어 했던 심층의식을 엿보게 한다. 崔承太는 매가 여우를 단번에 때려잡고 자신에게 사냥한 것들을 꼬박꼬박 바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는 답답한 일상에서 뭔가 통쾌한 일을 벌이고 자기 주도적인 생활을 누리고 싶은 욕구의 반영이다. 즉, 앞 절에서 崔承太는 공주에 체류하며 豪氣가 사라졌다고 낙담했지만, 사실 豪氣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억눌린 것이었다. 따라서 그 억압된 심층의식이 이 시처럼 뜻밖의 상황을 만나자

36) 崔承太, 『雪蕉遺稿』(문충 속 40), 「西穴寺蒼鷹」, p.344, “人傳西穴寺, 石窟近僧屋. 夜夜石窟中, 蒼鷹來栖宿. 狂豪聞此言, 持網往求得. 我亦發衰興, 共登西山麓. 陰厓雪尚在, 古窟寒氣積. 暗泉鳴深竇, 懸冰珠錯落. 窺伺到夜半, 山月映石壁. 但有鷹栖跡, 不見風霜翻. 何處雲雪裡, 蒼藤坐古木. 我欲得此禽, 一擊狐夜哭. 雉兔不足數, 祇堪供饋食.”

37) 西穴寺는 『新增東國輿地勝覽』에 望月山에 있다는 기록만 있을 뿐 자세한 기록이 전하지 않는다. 1799년(정조23)에 편찬된 『梵宇攷』에 따르면 西穴寺는 東穴寺, 南穴寺, 舟尾寺와 함께 백제시대의 四穴寺 중 하나였으며, ‘서혈사는 지금 폐사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현재 四穴寺址는 충청남도 기념물 제37호이다.

발현된 것이다.

나아가서 崔承太의 억눌린 豪氣는 계룡산 유람과 그에 관한 시창작을 통해 전면적으로 표출된다. 鷄龍山은 산의 규모는 작지만 닭 벅을 쓴 용의 형상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험준한 바위 봉우리·깊은 계곡·울창한 숲이 조화를 이뤄 산세가 수려하다. 崔承太는 이러한 鷄龍山의 경관에 매료되어 그 웅장하고 신비로운 모습과 그곳을 오르면서 느낀 벽찬 감정을 장편 가행체 작품으로 형상화했다.

「공주의 객사에서 계룡산가를 읊다」<sup>38)</sup>

① 허리에 검은 구슬을 차고 / 손으로 옥지팡이를 끌고 가네 / 입으로 「遠遊賦」를 외우며 / 소탈하게 푸른 노을을 생각하네 / 하늘 바람 내가 찬 구슬과 지팡이로 불어와 지나가는데 / 계룡산은 높이가 만 길이로세 / 만 길 붉은 사다리 잡고 오를 수 없거늘 / 안개비 자욱하게 鶴髦衣를 적시네 / 앞에선 사나운 호랑이 울부짖어 천 길 벼랑을 찢고 / 뒤에선 숲 속 나무 끝 서늘한 바람이 도깨비 소리를 내네<sup>39)</sup>

② 괴물들 당황스럽게도 헤아릴 수 없는데 / 큰 소리로 꾸짖자 구름이 조각 조각 흩어지네 / 한 번 외치자 못 아래서 늪은 용이 나오니 / 금빛 갑옷 불타는 갈기에서 붉은 번개 일어나네 / 말을 타듯 용을 채찍질하며 올라타니 / 큰 무지개가 앞에서 인도하고 구름은 궁궐을 이루네 / 숫구치는 샘물 요란하게 울리며 내 기세를 돕고 / 큰 바위들 가파르게 솟아 들판처럼 펼쳐져 있네<sup>40)</sup>

① 단락은 韻目을 '上聲 養'으로 삼아, 걸림 없고 기상이 넘치는 마음이 짐으로 鷄龍山을 오르는 시적 자아를 형상화한다. 여기에서 '玄珠', '玉杖', '靑霞', '丹梯', '鶴髦'와 같은 시어는 도가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또한 屈

38) 崔承太, 『雪蕉遺稿』(문충 속 40), 「公山旅邸, 賦得雞龍山歌」, p.348.

39) "腰間佩玄珠, 手中携玉杖. 口誦遠遊賦, 落落靑霞想. 天風吹我珮杖去, 雞龍之山高萬丈. 萬丈丹梯不可攀, 霧雨濛濛濕鶴髦. 前有猛虎吼裂千崖石, 後有林杪颯爽嘯鸚鵡."

40) "怪物愴不足數, 喑啞叱咤雲片片. 一呼潭底老龍出, 金甲火鬣生赤電. 鞭龍直跨似騎馬, 雄虹導前雲爲殿. 奔泉喧轟助我勢, 大石巖崕平如甸."

原이 참소를 당해 조정에서 축출된 뒤 비탄에 잠겨 仙人과 함께 천지를 소요하는 내용으로 이뤄진 「遠遊賦」를 외운다는 설정으로 시적 자아의 도가적이고 탈속적인 면모를 복돋운다. ② 단락에서는 韻目을 '去聲 霰'으로 바꿔 호랑이가 울부짖고 도깨비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음산한 분위기에 주눅 들지 않고 그것을 큰 소리로 꾸짖어 물리치는 기상을 드러낸다. 이어서 시적 자아가 화려하고 기세등등한 용을 타고 환상적인 공간과 가파르고 험한 산세를 지나 산 위로 향하는 장면을 생동감 있게 묘사한다.

③ 잠깐 사이에 훌쩍 올라 산봉우리에 앉으니 / 수많은 절벽과 고개가 구불구불 돌렸네 / 하늘로 우뚝 솟아 여와씨의 돌이 떠받든 듯 / 밝은 반달이 뜨니 아미산과 같구나 / 황홀한 箕尾星은 부열이 온 듯 / 흡사 弄玉이 부는 생황과 통소소리 들리는 듯<sup>41)</sup>

④ 용을 바위 앞 태곳적 나무에 매어 두고 / 칼을 뽑아 곧장 울분을 드러내네 / 너 산신령의 수많은 죄를 꾸짖노니 / 수도의 터를 쌓던 그해에 어찌 바치지 않았는가 / 聖祖께서 帝運을 계승해 대업을 여시니 / 모든 신령이 귀의해서 한 자 한 치까지 반항했네 / 네 산봉우리에 망치질 하고 네 동굴에 불을 질러 / 하늘 밖으로 몰아내자 너가 달아났지 / 鷄龍白石이라는 요망스런 예언을 너는 믿지 말라 / 삼각산의 아름다운 기운 억만년을 기약하리<sup>42)</sup>

③ 단락에서는 韻目을 '上聲 紙'와 '平聲 支'로 바꿔, 용을 타고 단숨에 오른 산봉우리의 우뚝하고 드높은 모습을 묘사한다. 이때 여와씨가 오색의 돌을 갈아서 하늘을 메웠다는 전설<sup>43)</sup>, 李白이 읊은 「峨眉山月歌」의 장면<sup>44)</sup>,

41) 「須臾忽上峯頭坐, 千崖萬嶺繞逶迤. 峽天疑觸女媧石, 明月半輪齊峨眉. 恍然箕尾傳說來, 彷彿笙簫秦女吹.”

42) “繫龍岩前太古樹, 拔劍便欲開憤懣. 叱爾山靈數爾辜, 蓄址當年胡不獻. 聖祖承運啓大業, 萬靈來依歸尺寸. 鎚爾峯巒火爾穴, 駢出天外爾奔遁. 妖讖白石爾莫信, 華山佳氣期億萬.”

43) 『淮南子』, 「覽冥訓」, “於是, 女媧鍊五色石, 以補蒼天, 斷鼈足, 以立四極.”

44) 李白, 「峨眉山月歌」, “峨眉山月半輪秋, 影入平羌江水流. 夜發三溪向三峽, 思君不見下渝州”(瞿峴園·朱金城校注, 『李白集校注』, 上海古籍出版社, 1998, p.566).

傳說이 箕尾星이 되었다는 전설<sup>45)</sup>, 弄玉이 부는 생황과 통소소리에 비유하여 산봉우리의 웅장함, 산봉우리에 달이 걸쳐진 장면, 밝은 별빛과 불어오는 바람소리의 아름다움을 묘사한다. 그리고 ④ 단락에서는 韻目을 ‘去聲願’으로 바꿔, 타고 온 용을 오래된 나무에 매어 놓고 대뜸 칼을 뽑아 鷄龍山의 신령을 꾸짖는다. 이를 통해 조선이 개국할 때 鷄龍山에 수도를 정하려다 계획을 바꾼 일의 책임을 산신령에게 돌리고, 鷄龍山의 바윗돌이 희어지면 정도령이 나와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는 『鄭鑑錄』의 내용을 비판하며 조선왕조의 무궁함을 염원한다.

⑤ 사뿐사뿐 다시 가장 높은 정상에 오르니 / 汗漫과의 참된 노닐을 盧敖에게 기약했지 / 백제의 강토가 일순간 눈에 다 들어오고 / 만 리 산하가 秋毫처럼 세세히 구분되네 / 동쪽으로 羲和가 해를 扶桑에 걸어놓은 곳을 바라보고 / 서쪽으로 동방삭이 세 개 흠쳤던 蟠桃를 가리키네 / 바다 위 신선의 섬 몇 천만 개인지 모르겠으니 / 봉래산은 어느 곳에서 금자라를 누르고 있나 / 금자라는 천 년이 지나 뼈에 서리가 내렸으리니 / 봉래산은 바다 위를 떠다니고 있지 않겠는가<sup>46)</sup> / 큰 파도 거대한 물결 天門에서 솟아오르고 / 긴 바람 비를 몰아 내 옷에 뿌려대네<sup>47)</sup>

⑥ 구름 도포 벗어서 맑게 갠 햇빛에 쬐고 / 잠시 눈 쌓인 봉우리에 걸터앉아 채색 붓을 휘두르네 / 여러 봉우리 연꽃처럼 솟아 푸른 하늘에 꽃혔는데 / 채색 노을 비단처럼 흔들리며 봄날을 환하게 하네 / 눈처럼 흰 학은 나를 향해 춤을 추고 / 푸른 무소 누른 꿈은 와서 무릎을 굽히네 / 홀연히 돌개바람 천상에서 불어오니 / 만 개의 골짜기 소나무 물결 큰 바다처럼 출렁이네<sup>48)</sup>

45) 『莊子』, 「大宗師」, “傳說得之, 乘東維, 騎箕尾, 而比於列星.”

46)李白, 「登高邱而望遠海」, “登高邱, 望遠海. 六鯨骨已霜, 三山流安在. ……” (瞿蛻園·朱金城校注, 『李白集校注』, 上海古籍出版社, 1998, p.283).

47) “翩翩更躡最高頂, 汗漫真遊期盧敖. 百濟封疆一瞬盡, 萬里山河分秋毫. 東望羲和掛日之扶桑, 西指方朔三偷之蟠桃. 海上仙島不知幾千萬, 蓬萊何處壓金鰲. 金鰲千載骨已霜, 無乃蓬山漂海濤. 洪濤巨浪湧天門, 長風吹雨洒我袍.”

48) “吹脫雲袍曝晴曦, 暫踞雪峰揮彩筆. 群峰聳蓮插青冥, 彩霞搖練明春日. 白鶴如雪向我舞, 蒼兕黃熊來屈膝. 忽然迅鬣閭闔來, 萬壑松濤動溟渤.”

⑤ 단락에서는 韻目을 '下平 豪'로 바꿔, 鷄龍山 최정상의 드높고 탁 트인 경관을 묘사한다. 여기에서도 汗漫과 盧敖의 고사<sup>49)</sup>를 비롯해 '扶桑', 동방삭의 '蟠桃', 금자라가 등으로 지고 있다는 봉래산의 전설을 인용하여 장대한 경관을 환상적으로 형상화한다. ⑥ 단락에서는 韻目을 '入聲 質'과 '入聲 月'로 바꿔 鷄龍山 최정상의 아름다움과 그 분위기에 심취한 시적 자아의 정서를 형상화한다. 드디어 최정상에 오른 시적 자아는 어느덧 맑게 갠 날씨에 시원하게 옷을 벗어 말리며 산봉우리에 걸터앉는다. 그리고 연꽃처럼 솟아오른 봉우리와 비단 같은 노을에 둘러싸여 자신에게 귀의하는 鷄龍山의 못 동물들을 맞이하며 바다처럼 물결치는 소나무 숲을 감상한다.

⑦ 나 또한 침상에서 일어나 / 길게 휘파람 불며 온 세상을 바라보네 / 온 세상은 끝이 없거늘 / 장쾌한 회포 갑자기 잦아드네<sup>50)</sup>

⑧ 칼을 잡고 산기슭을 내려오며 / 용을 놓아줘 굴로 돌려보내네 / 객사로 돌아와 한 번 읊어보나니 / 계룡산이 문득 보여 자리를 옮기네 / 煙霞를 두른 만개의 봉우리 절벽 위가 푸르르고 / 드넓은 푸른 바다 술잔 속에 하이얏네 / 만고토록 분분하던 시름이 어디 있으랴 / 중형무진한 기개가 백척 같이 드높네 / 바다 물결로 버루의 먹물 삼고 오로봉으로 붓을 삼은 / 이백의 미친 듯한 흥취와 거침없음이 같구나 / 계룡산에서 읊은 노래 흥취가 멈추질 않으니 / 다시 어느 봉우리를 찾아 내 두건을 벗을까<sup>51)</sup>

⑦ 단락에서는 韻目을 '上聲 賄'로 바꿔, 마침내 호방한 기상을 맘껏 펼치면서 아름답고 장엄한 鷄龍山과 하나가 되고 또 鷄龍山을 호령하기에

49) 『淮南子』, 「道應訓」, “盧敖游乎北海, 經乎太陰, 入乎玄闕, 至於蒙穀之上. 見一士焉, 深目而玄鬢, 淚注而鳶肩, 豐上而殺下. …… ‘嘻! 子中州之民, 寧肯而遠至此? 此猶光乎日月, 而載列星, 陰陽之所行, 四時之所生, 其比夫不名之地, 猶突奧也. …… 今子游始於此, 乃語窮觀, 豈不亦遠哉. …… 吾與汗漫期于九垓之外, 吾不可以久駐.”

50) “我亦牀而起, 長嘯望四海. 四海不可極, 壯懷遽爾息.”

51) “杖劍下山麓, 放龍歸窟宅. 歸來旅邸賦一吟, 龍山歛見移几席. 萬峰烟霞壁上青, 一泓滄海杯中白. 紛紛萬古愁何在, 氣岸縱橫豪百尺. 洋瀾硯池五老筆, 李白狂興同磊落. 龍山之歌興未了, 更向何峯岸吾憤.”

이런 절정의 순간을 만끽한다. 그리고 ⑧ 단락에서 韻目을 '入聲 陌'으로 바꿔,<sup>52)</sup> 자신이 타고 다니던 용을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고, 객사로 돌아와 鷄籠山을 유람한 여흥을 즐기며 시를 마무리한다. 이제 시적 자아는 저 멀리 鷄籠山을 바라보며 모든 시름을 날려버리고 솟아오르는 기개를 느끼면서 한껏 고양된다. 그리고 이러한 흥취야말로 李白이 「五老峯詩」에서 “五老峯으로 붓을 삼고, 三湘의 물로 먹을 갈아, 푸른 하늘 한 장 종이에, 내 뱃속의 시를 쓰련다(五老峯爲筆, 三湘作硯池. 青天一張紙, 寫我腹中詩).”<sup>53)</sup>라고 했던 흥취와 같음을 깨닫는다. 그리하여 또 다시 이런 흥취를 느끼고 싶은 소망을 드러내며 작품을 마무리한다.

이처럼 崔承太는 鷄籠山 유람 덕분에 공주체류기의 심적 괴로움에서 벗어나 자신의 억눌린 豪氣를 거침없이 발산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것을 장편 가행체 작품으로 형상화해서 자신이 鷄籠山 유람을 통해 느낀 감격과 흥취를 극대화했다. 崔承太는 가행체라는 비교적 자유로운 장편 시형식을 바탕으로, 유람의 여정을 도가적 색채를 가미하여 화려하고 환상적으로 연출했다. 그리고 작품의 각 단락마다 韻目을 바꿔가며 운율감을 주면서 다채로운 장면 전환을 통해 흥미를 높이고, 시적 자아의 행동과 심경을 극적으로 형상화했다.

특히 崔承太는 호방한 기상을 발산하려는 문학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곳곳에서 李白의 시구절을 상기시키고 李白과의 정서적 동질감을 부각했다. 더 근원적으로는 이 작품의 기본적인 작품 구도와 시상 전개에서부터 李白의 「廬山謠寄盧侍御虛舟」<sup>54)</sup>를 모의했다. 「廬山謠寄盧侍御虛舟」는 여산의 수려함

52) 李白「狂興同磊落」에서 隣韻으로 '入聲 藥'을 사용했다.

53) 李白의 「五老峯詩」는 李白의 문집에는 없는데, 많은 문인들에게 李白의 시로 구전되었다.

54) 李白, 「廬山謠寄盧侍御虛舟」, “我本楚狂人, 鳳歌笑孔丘. 手持綠玉杖, 朝別黃鶴樓. 五岳尋仙不辭遠, 一生好入名山游. 廬山秀出南斗旁, 屏風九疊雲錦張. 影落明湖青黛光. 金闕前開二峰長, 銀河倒掛三石梁. 香爐瀑布遙相望, 回崖沓嶂凌蒼蒼. 翠影紅霞映朝日, 鳥飛不到吳天長. 登高壯觀天地間, 大江茫茫去不還. 黃雲萬里動風色, 白波九道流雪山. 好爲廬山謠, 興因廬山發. 閑窺石鏡清我心, 謝公行處蒼苔沒. 早服還丹無世情, 琴心三疊道初成. 遙見仙人彩雲里, 手把芙蓉朝玉京. 先期汗漫九垓上, 願接盧敖游太清.” (瞿峴園·朱金城校注, 『李白集校注』, 上海古籍出版社, 1998, p.863).

을 仙界의 환상적 세계로 묘사하고 여산에서 조망한 경치를 장쾌한 필치로 그린 작품이다. 崔承太의 「公山旅邸 賦得雞龍山歌」는 '玉杖'을 짚고 산을 나서는 도입부, 장대한 산의 환상적 묘사, 정상에 오른 감회와 경관의 표현, 汗漫과 盧敖의 고사를 인용한 작품의 후반부 등이 「廬山謠寄盧侍御虛舟」와 닮아 있다. 여기에다가 편폭을 확장해서 자신만의 문학적 상상력과 수사적 필치를 가미하여 개성적인 작품을 구현한 것이다. 더욱이 「廬山謠寄盧侍御虛舟」는 李白이 760년(59세)에 夜郎으로 추방되었다가 사면을 받고 돌아온 이듬해에 지은 시이다. 따라서 이 시의 탈속적 정취와 도가적 색채가 정치적 좌절에 따른 회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 또한 崔承太의 관심을 끌었을 것이다.

요컨대 崔承太의 「公山旅邸 賦得雞龍山歌」는 洪世泰가 「雪蕉詩集序」에서 말한 '崔承太의 시는 李白을 스승으로 삼았고 歌行과 長篇이 뛰어나고 드높은 기상이 있다'는 평가에 부합하는 작품이다. 그리고 이 작품은 신분적 제약과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현실에서 비롯된 불평한 정서와 억압된 의식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호방한 기상을 분출하기 위한 문학적 돌파구였다.

「錦江鷄龍山歌」<sup>55)</sup>

「錦江과 鷄龍山에 관한 노래」

錦江綠如酒  
龍山高插天  
我歌錦水曲  
直上龍山巔

금강은 술빛처럼 푸르고  
계룡산은 하늘을 찌를 듯 드높네  
나는 금강 물굽이를 노래하고  
곧장 계룡산 꼭대기로 올라가네

又

愛江必歸海  
愛山不屈腰  
志士死不變  
山高水迢迢

강물이 반드시 바다로 돌아감을 사랑하고  
산이 허리를 굽히지 않음을 사랑하네  
뜻 있는 선비는 죽어서도 변치 않으니  
산은 높고 강물은 아득히 흘러가네

55) 崔承太, 『雪蕉遺稿』(문충 속 40), p.350.

총 여섯 수로 이뤄진 「錦江鷄龍山歌」는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하루 종일 거처하는 곳에 홀로 누워있자니 쓸쓸한 마음을 견딜 수 없어 이 시 여섯 수를 지어 스스로 마음을 달래었다. 실로 優孟<sup>56)</sup>이 손뼉을 치는 격이니 어찌 시라고 이를 수 있겠는가?”<sup>57)</sup>라는 부연 설명처럼 崔承太가 무묘하고 쓸쓸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가벼운 필치로 쓴 작품이다. 그러나 단출한 필치 속에서 오히려 崔承太의 진솔한 속내가 잘 드러난다. 인용한 첫 번째 작품은 공주에서 錦江과 鷄龍山이 차지하는 대표성을 말해준다. 두 번째 작품은 곳곳하게 자신의 뜻을 향해 나아가고 절조를 굽히지 않는 錦江과 鷄龍山의 모습에 깊은 감화를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又

江欲植芙蓉	강에는 부용꽃을 심고 싶고
山欲養鸞鶴	산에는 鸞鶴을 기르고 싶네
芙蓉作裙裳	부용꽃으로는 치마를 만들고
鸞鶴爲羽翼	鸞鶴으로는 날개를 만드리라

又

仁者能好山	어진 자는 산을 좋아하고
智者能好水	지혜로운 자는 물을 좋아하는데
我無仁智術	나는 仁術과 智術이 없으니
狂歌山水裡	산수 간에서 미친 듯 노래만 부르노라

인용한 세 번째 작품에는 맑고 깨끗한 마음가짐과 의식의 지향을 염원하며, 쓸쓸하고 괴로운 속세를 벗어나 자유로움을 만끽하고픈 바람이 담겨 있다. 마지막으로 인용한 다섯 번째 작품은 ‘仁者樂山, 知者樂水’라는 정형화된 군자상을 거부하며, 자신의 불평한 정서와 억압된 의식을 ‘狂歌’라는 형식을 통해 문학적으로 승화하고 있다. 이처럼 錦江과 鷄龍山은 힘들

56) 優孟 : 춘추시대 楚나라의 유명한 광대이다.

57) “春雨廉纖 竟日獨坐寓所, 不勝寥落之懷, 賦此六首以自遣, 宗優孟之抵掌, 豈云詩乎?”

어하는 崔承太에게 때로는 정서적 위안을 때로는 인생의 본보기를 제공해주었으며, 탈속적 공간이자 속내를 맘껏 토로할 수 있는 매개가 되어 그를 지켜 주었던 것이다.

#### IV. 결 론

조선시대 여향문학은 16세기 말부터 17세기 초반에 걸쳐 활약한 六家에 의해 대두되었다. 崔承太는 六家の 핵심 인물이자 많은 여향문인 제자를 가르친 崔奇男의 아들로써 17세기 중후반 서울 여향문인들의 詩社 활동을 범칭하는 洛社의 대표적인 구성원이었다. 중인과 서리층으로 구성된 洛社의 여향문인들은 三清洞을 배경으로 활동하며 문학적인 결속을 다졌다. 그들은 신분적 제약으로 인한 갈등과 괴로움에 의기소침하지 않고, 오히려 활발한 문학 창작 활동과 교유를 통해 豪氣를 발산하고 자유롭게 풍류를 즐기며 동질감을 확인했다.

그러나 그들이 서로 떨어져 혼자가 될 때는 신분적 제약과 그로 인한 현실적 궁핍함을 상대적으로 더 깊이 절감할 수밖에 없었다. 崔承太가 공주에 체류하던 시기에 고립감과 괴로움이 극대화 된 데에는 이러한 영향이 컸다. 그리하여 崔承太는 한양에 있는 知友와 가족들에게 재능을 알아주지 않는 현실과 힘든 생활에서 비롯된 불만과 상념을 여러 편의 시로 토로했다. 또한 시 속에서 '쓸모없는 칼', '푸른 녹이 낀 칼', '방황하는 칼' 등의 意象을 적극 사용하여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괴로움을 강조했다. 하지만 한양에 있는 知友와 가족들은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고마운 존재이기도 했다.

또한 崔承太는 공주의 명승을 유람하며 심신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계룡산 유람은 잃어버린 줄 알았던 호방한 기상을 회복시켜 주었다. 이에 崔承太는 李白의 詩風과 장편 가행체 형식을 적극 활용하여 계룡산에서 느낀 호방한 기상을 거침없이 시로 표출하였다. 말하자

면 鷄龍山은 崔承太가 李白의 詩風을 맘껏 모의하고 발산할 수 있는 시적 매개물로 작용하며, 그가 현실에서 이를 수 없는 '豪氣'를 '狂歌'를 통해 맘껏 발산할 수 있게 해 준 고맙고도 소중한 존재였다.

### 부록 : 崔承太가 공주체류기에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 한시 18題 27首

詩體	題目	出典
五言古詩	「公山旅舍, 書懷寄世衍」	『雪蕉遺稿』(총간 속 40), 344면
五言古詩	「憶鷄龍山(雪峯五松亭, 在雞龍山)」	『雪蕉遺稿』(총간 속 40), 344면
五言古詩	「西穴寺蒼鷹」	『雪蕉遺稿』(총간 속 40), 344면
七言古詩	「憶鄕場諸友」	『雪蕉遺稿』(총간 속 40), 348면
七言古詩	「公山旅邸, 賦得雞龍山歌」	『雪蕉遺稿』(총간 속 40), 348면
五言絕句	「錦江鷄龍山歌」 6首	『雪蕉遺稿』(총간 속 40), 350면
七言絕句	「待京人, 過期不來」 2首	『雪蕉遺稿』(총간 속 40), 354면
七言絕句	「公山旅舍, 贈咸善伯」	『雪蕉遺稿』(총간 속 40), 354면
五言律詩	「上草菴」	『雪蕉遺稿』(총간 속 40), 356면
五言律詩	「遊甲寺」	『雪蕉遺稿』(총간 속 40), 356면
五言律詩	「寒食」	『雪蕉遺稿』(총간 속 40), 356면
五言律詩	「大行大王發朝日, 在公山志感」	『雪蕉遺稿』(총간 속 40), 356면
七言律詩	「公山旅舍書懷」 2首	『雪蕉遺稿』(총간 속 40), 361면
七言律詩	「寄洛中諸友」 2首	『雪蕉遺稿』(총간 속 40), 361면
七言律詩	「遊洞鶴寺」 2首	『雪蕉遺稿』(총간 속 40), 361면
七言律詩	「呈公山李判官」	『雪蕉遺稿』(총간 속 40), 361면
七言律詩	「人日」	『雪蕉遺稿』(총간 속 40), 361면
七言律詩	「立春」	『雪蕉遺稿』(총간 속 40), 362면

〈參考 文獻〉

- 『CD-ROM 文淵閣四庫全書 電子板』, 迪志文化出版有限公司, 2000.
- 한국고전종합 DB : <http://db.itkc.or.kr/itkcdb/mainIndexIframe.jsp>
- 瞿巍園·朱金城校注, 『李白集校注』, 上海古籍出版社, 1998.
- 강난희, 「崔承太의 한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 강명관, 『조선후기 여항문학 연구』, 창작과비평사, 1997.
- 강석중, 「雪蕉 崔承太의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 11, 한국한시학회, 2007.
- 성범중, 「龜谷 崔奇男의 삶과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 10, 한국한시학회, 2006.
- 신해순, 「조선전기의 西班牙衙前 「阜隸·羅將·諸員」」, 『대동문화연구』 21,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87.
- 원재영, 「朝鮮後期 京衙前 書吏 研究: 19世紀 호조서리의 사례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32, 조선시대사학회, 2005.
- 윤재민, 『조선후기 중인층 한문학의 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999.
- 임선빈, 「충청감영 역사기록 정리의 성과와 과제」, 『지방사와 지방문화』 11, 역사문화학회, 2008.

## Abstract

### *A study on Chinese poems of Seol-Cho(雪蕉) Choi Seung-Tae(崔承太) in Gongju*

Lee Gook-jin<sup>\*</sup>

Choi Seung-Tae(崔承太) is a plebeian poet in the middle and late 17th century. His father is Choi Gi-Nam(崔奇男) who was the leading figure of the plebeian literature. Hong Se-Tae(洪世泰) is a figure having very close relationship with Choi Seung-Tae(崔承太) and arranged the works written in his posthumous work and wrote the preface for his collection of works.

The plebeian writers who engaged in the activities around Samcheong-dong(三清洞), Seoul at that time, were depressed by the conflict and the agony due to restriction by social standing rather confirm their homogeneity acting pompously and enjoying the arts through the active literary creation activity and the exchange. However, when they were alone separated each other, they could not but realize the restriction by social standing and the impoverishment more deeply by that.

Stayed in Gongju, Choi Seung-Tae(崔承太) expressed his discontent and thought derived from the reality that did not recognize his talent and the hard life in various poems to his friends and family in Hanyang. In addition, he emphasized the agony of not being used properly using actively the images such as 'Useless sword', 'Sword rusted with green rust', 'Wandering sword', etc. in his poems. However, the friends and family in Hanyang were the grateful beings who raises his collapsed self-regard again.

In the meantime, Choi Seung-Tae(崔承太) could maintain the peace of mind traveling around scenic spots in Gongju. Among them traveling Gyeryongsan restored the magnanimous spirit that he thought that he had lost it. Choi Seung-Tae(崔承太) express the magnanimous spirit felt in Gyeryongsan in poem briskly utilizing the poetical style

---

<sup>\*</sup> Assistant professor of Chinese Classics Educa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 [jjinysmile@kangwon.ac.kr](mailto:jjinysmile@kangwon.ac.kr)

of Li Bo(李白) and the form of long poem. In other words, Gyeryongsan worked as poetic medium to imitate and release the poetic style of Li Bo(李白) and was a grateful and precious being that made him to express his magnanimous spirit fully, which he could not make it happen in reality.

【Key words】 Choi Seung-Tae(崔承太), plebeian poet, Gongju, Gyeryongsan, Geumgang, Li Bo(李白)

투고일 : 11월 08일, 심사완료일 : 12월 07일, 게재확정일 : 12월 08일

